

司教研究

제51집(2023/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한국 교회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청소년 연령대의 감소와 더불어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성당에서 청소년을 찾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성소자 감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는 한국 사회의 요구와 사도좌의 사제 양성 지침인 「사제성소의 선물」에 맞추려는 노력이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51호의 특집 주제는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과 관련하여”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은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2001년에 발표한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의 개정판으로, 2016년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인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을 바탕으로 미래 사제들이 직면할 사회, 문화, 교회 상황에 주목하면서, 한국 지역 사회와 전 세계 선교를 위한 사제를 통합적으로 양성하고자 한국 교회에서 마련한 한국의 사제 양성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21년 9월 14일 교황청 성직자성(현 성직자부)의 추인을 받았으며, 사제를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의 학칙과 내규에 적용되며, 서품 이후 지속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사제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제와 수도 생활 양성자를 위한 성 베드로 파브르 센터’(Saint Peter Favre Centre for Formators to the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에서 ‘양성’을 공부한 네분의 신부님에게 현재의 사제 양성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차원들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강조한 사제 양성의 예비 과정, 현대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서적 성숙, 사제 양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독신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속화의 개념과 그에 따른 사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대신학교에서 인성 양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인 신부는 “사제 양성을 위한 초기 양성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성 과정의 구조인 예비 과정, 제자 과정, 동화 과정, 성소 통합 과정에서 예비 과정에 대한 구체적 노력인 소신학교와 예비 신학생 모임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예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서 가정의 역할과 그러한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본당과 교구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곧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가정, 본당, 교구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려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수환 신부는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과 양성자의 동반”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양성의 차원들, 곧 인성, 영성, 지성, 사목 양성에서 정서적 성숙은 인성 양성에 속한 부분으로, 일부 사제들에게서 미성숙한 정서적, 성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주제를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 성숙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비전 안에서 정서적 성숙의 통합을 사제 양성과 연결하였고, 사회심리학적인 성숙함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들로서 첫째,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 둘째,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기 감성 상태

의 제어 능력, 셋째,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정서적 성숙의 과정에서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신학교에서 영성 양성자로 활동하는 하태욱 신부는 사제 생활에서 늘 노력해야 하는 ‘독신’을 주제로 하여 “사제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삶 실현을 위한 양성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독신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물’이면서 세상에서 남성이기도 한 사제에게 현실적인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으면서, 그 원리로 “성부에 대한 정결한 사랑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친교를 이루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완전성 안에 뿌리내린 성(性)은 근원적 긴장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통합되어 성숙해 가는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알기, 감수성의 양성, 일상생활 관리하기, 일상의 관계 관리하기 등을 양성적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독신을 자유롭게 선택한 사제뿐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제안들이라 생각합니다.

의정부교구 지축동요한성당 주임인 김명식 신부는 “세속화와 사제의 정체성”을 네 분의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찰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들어가는 말에서 “왜 오늘날 많은 사제들이 서품식과 성유축성미사 때 한 서약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마음이 찢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적한 세 가지 우상, 곧 영적 세속성, 실용주의, 기능주의는 세속화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제2의 그리스도’인 사제는 인간의 영혼과 친교를 이루는 성령의 전달자”라는 성 바오로 6세의 말씀을 기반으로 네 분의 교황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된 인식과 생활을 사제뿐 아니라 신앙인도 스스로 돌아보고 쇠신하도록 돕는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실린 글은, 밀라노 교구 소속의 성서신학자인 프랑코 만지(Franco Manzi) 신부가 *Notitiae*에 게재한 “파스카 성야의 ‘파스카 초의 마련’에 대한 성경 해설”을 본 대학의 전례학 교수이며 사목연구소장인 본인이 번역한 글입니다.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인 파스카 성야의 처음 예식인 ‘파스카 초의 마련’(Praeparatio cerei)의 전례 양식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밀도 있는 신학들을 밝혀냅니다. 특히 두 가지의 그리스도론 개념인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성경 해설을 통해 잘 설명해 줍니다.

20여 년 전에 봤던 유럽 교회의 현실, 곧 역사가 깊고 화려하며 감동을 주는 성당들이 즐비하지만 그 안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 교회에서 보여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숙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 개정’이 미래의 사제 양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의 각 구성원은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司牧研究 제51집 2023 겨울

차례

발간사/ 3 윤종식

- [특집]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사제 양성을 위한 초기 양성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9 한상인
-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과 양성자의 동반/ 44 김수환
- 사제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삶 실현을 위한 양성적 제안/ 70 하태욱
- 세속화와 사제의 정체성: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신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103 김명식

[번역]

파스카 성야의 ‘파스카 초의 마련’에 대한 성경 해설/ 149
프랑코 만지, 윤종식 옮김

[부록] / 171

-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173
 -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179
 -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182
 -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184
 -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185
-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3 여름) 187

Contents

-
-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 [Special Issue] Regarding *Ratio Nationalis: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revised draft)
-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a Propaedeutic Stage as an Initial Formation for Priestly Formation/ 9 *Rev. Han, Sangin, S.T.L.*
- The Contents of Priestly Formation and the Accompaniment of the Formation Members for Affective Maturity/ 44 *Rev. Kim, Suhwan, S.T.L.*
- The Formative Suggestion to Realize a Clerical Celibacy as Vocation/ 70 *Rev. Ha, Taewook, S.T.L.*
- Secularization and Priest's Identity: Based on the Pastoral and Theological Teachings of Paul VI, John Paul II, Benedict XVI and Francis/ 103 *Rev. Kim Myoungsik, S.T.L.*
- [Translation]
- The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aeparatio cerei” of the Easter vigil/ 149 *Faranzo Manzi. S.T.D.*
tr. by Rev. Yun, Jongsik, S.L.D.
- [Appendixes]/ 171